

광주 가전산업이 다시 뜬다

3각편대 재편

새 주인 맞고 체제 정비 재도약 스타트

광주 가전산업이 다시 뜬다.

생산물량 해외 이전과 수차례 매각 실패,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크게 위축됐던 광주지역 가전 3사가 최근 체제 정비를 끝내고 재도약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오텍캐리어 등 가전 3사의 최근 경영 변화와 시장 전략, 협력업체들의 브랜드 출시 등 광주 가전산업의 점검한다.

◇삼성 "1등 아니면 사업할 필요 없다" = 삼성전자는 저가 가전제품의 해외 이전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광주사업장을 프리미엄 제품 생산기지로 전환했다. 특히, 윤부근(소비자가 전담 담당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광주사업장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백색가전 '1등 전략'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대표적 제품이 '윤부근 냉장고'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 냉장고인 'T9000'이다. 업계에서는 "T9000"이 올해 말 삼성 가전의 '1등 탈환' 첫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9000은 출시 한달 만에 국내 내수 시장에서 1만대가 팔릴 정도로 시장 반응이 뜨겁다. 광주사업장은 T9000의 인기로 주문량이 늘면서 냉장고 생산라인이 풀가동되고, 잔업과 특근이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에 이어 올 하반기 세탁기·에어컨도 '윤부근표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대우일렉, 새주인맞이 기대=대



지난달 31일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 노사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협력적 노사문화 선도 등 사회적 책임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삼성, 해외이전 마무리 '1등 전략' 프로젝트 가동

대우일렉, 벽걸이 세탁기 선봉 30개국 공략 나서

오텍캐리어, 작년 첫 흑자 전환 성공 상장도 추진

우일렉 광주공장은 새주인 맞을 체제로 분주하다. 신제품을 출시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노사 협력 실천을 다짐했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동부그룹이 결정되면서 대우일렉의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부그룹은 현재 대우일렉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실사를 끝내고, 이르면 10월 말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실사 과정에서 돌발 변수만 없다면 대우일렉은 동부그룹의 품에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새주인 맞이에 앞서 광주공장 노사

와 협력업체들은 지난달 31일 '사회적 책임 실천'을 다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역사회 동반 성장과 협력적 노사문화 선도를 하고, ▲투명경영·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노사의 사회적 책임 행동 규범을 성실히 수행하며, ▲대·중소기업 상생 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공장은 신제품 개발·출시를 통해 틈새시장 공략에 전력하고 있다. 세계 최초 벽걸이 세탁기와 3도어 냉장고를 선봉으로 유럽·중남미·아시아 등 세계 30여개국을 공략하고

있다.

◇캐리어, 오텍 인수 뒤 흑자 전환 = 캐리어에어컨은 지난해 오텍이 인수한 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오텍은 앰블런스·냉동차 등 특수차량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 냉동·냉장차와 시너지를 내고 있다.

오텍캐리어는 지난해 매출액 2760억원, 영업이익 55억원으로 첫 흑자 전환 했다. 올해는 매출액 4100억원, 영업이익의 400억원 달성을 통해 영업이익률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수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여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 다.

오텍은 이를 위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을 통해 안정된 수익 창출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규모 자금을 통한 재무자, '오텍캐리어'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확실히 알린다는 전략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럽위기 중국으로 옮겨붙나

주가 떨어지고 위안화 하락 불안감 확산...한국경제 긴장

한국과 중국의 신용위험도 격차가 사라졌다. 국제금융센터는 한국과 중국의 부도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지난달 31일 각각 104bp(1bp=0.01%포인트)로 동일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주 한 주간 상하이지수가 2.13%(44.58 포인트) 하락해 지난 달 31일 2,047.52로 장을 마치자 상하이종합지수 2,000선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경기회복의 발목을 붙잡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 안팎의 수요 감소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세차례 하락을 유지하다가 지난 6월과 7월 각각 99.3, 98.2를 기록해 두차례 상승했다.

그동안 한국보다 조금 낮은 금리를 유지해왔던 중국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최근 들어 높아진 것은 중국경기의 회복세 둔화에 대한 실망감과 위기감이 반영

된 탓이다. 중국경제의 위축된 투자심리는 가장 먼저 증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경기회복의 발목을 붙잡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 안팎의 수요 감소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세차례 하락을 유지하다가 지난 6월과 7월 각각 99.3, 98.2를 기록해 두차례 상승했다.

그나마 최근 기저효과를 컸던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예상된다.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이 재

개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자 부진한 실물경기와 주식시장 대신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6~7월 주택가격이 올랐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는 세금 수입이 날로 줄어드는 가운데 부동산 억제 효과가 있는 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주택 대출은 엄격히 차별화하기로 결정,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활기보다 불안감이 높은 상태다.

중국 경제회복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위안화 하락세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 위안화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1% 하락했지만 위안화 하락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어려움은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경제를 전반적으로 짓누르고 선진국의 재정위기를 증폭시키면서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남세무서 태풍피해 복구 봉사

직원 30명 파손 비닐하우스 철거 구슬땀



해남세무서(서장 한연호)는 지난 31일 오후 태풍피해 관내 농가를 방문해 긴급 피해복구활동을 전개했다. (사진)

한 서장을 비롯한 해남세무서 직원 30명은 강진군 강진읍에는 항상 먼저 달려오는 해남세무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는 등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와 섬김의 세정활동을 펼쳤다.

한연호 서장은 "농어촌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관할 농어촌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에는 항상 먼저 달려오는 해남세무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업체 수주

상반기 14% 증가

올해 상반기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업체 모임인 한국건설경영연합회는 30개 회원사의 상반기 수주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 17%, 해외 9.9%의 성장률을 보여 전체 수주총계는 54조9990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민간부분이 22.8% 증가한 반면 공공공사는 1.2% 감소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12.71 (+7.59)
▲ 코스닥지수	512.45 (+4.10)
▼ 금리 (국고채 3년)	2.75% (-0.01)
▼ 원·달러 환율	1,131.00원 (-3.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광주·전남 수출유망중소기업 10곳 중 6곳

지정 이후 수출 10% 이상 늘어

광주·전남 수출유망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수출 실적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중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205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적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2개사 가운데 32개사가 지정 이후 수출이 10%이상 신장됐다고 답했다.

지난 2010년 지정된 (주)케이제이메디텍은 30만달러에 불과하던 수출

이 올해 현재 200만달러를 넘어 수출 실적이 56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 (주)위드솔루션, (주)포에프도 꾸준히 수출실적이 증가해 같은 기간 대비 500% 이상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수출지원기관의 우대 지원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후 바이어의 반응이 어찌저를 묻는 질문

에 '매우 좋다'가 23%, '다소 좋다'가 49%로 나타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이후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의 수출을 진흥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수출시장과 바이어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이라고 밝힌 업체가 17%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수출 유관기관 및 우대지원내용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은 다음달 받을 계획이다. 문의, 광주전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롯데 하반기 1200명 채용

롯데그룹은 올 하반기에 공채 800명과 동계 인턴 400명 등 신입사원 1200명을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신입 공채는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동계 인턴은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각각 열을 동안 '롯데 채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접수한다. 롯데그룹은 작년에도 이어 이번 하반기 신규채용에서도 지원 자격을 완화해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토록 했고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들에게는 공채 서류전형 면제, 또는 인턴십 기회 부여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료전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종을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너무 부리와 벌레, 습기의 침범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성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